

대단원 종합 문제

4. 함께 여는 세상의 창

학년 반 번 이름

점수

확인

[01-0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완득이 등장. 완득이와 어머니, 서로를 마주하고는 할 말을 잃는다.

어머니: ㉠....., 잘 지냈어요?

㉡<마주치지 않을게요 / 배경 음악>

어머니: 잘 커 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냥 한 번만.....

어머니, 들고 온 종이 가방들을 완득이에게 건넨다.

어머니: 이거..... ㉢<포장을 뜯으며> 요즘 남자아이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거래요

어머니가 상자를 뜯으면 운동화가 나타난다.

어머니: 신어 봐요....., 신어 보세요.

완득: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나) 어머니: (품 안에서 흰 봉투를 꺼내 건네며) 이거..... 말로는 잘 못 하겠어서..... 너무 미안해서.....

달동네가 시끄럽다. 완득이 아버지와 민구 삼촌이 옥탑방으로 들어선다. / ㉣어머니, 얼른 완득이의 손에 흰 봉투를 쥐여 준다.

민구 삼촌: 안, 안녕, 안녕하세요! 완, 완득이, 손, 손님인가 봐요! 아버지: 누가 왔어? // ㉤어머니, 아버지를 마주하고는 파르르 떤다. // 아버지: 이게 뭐야! 아버지, 운동화를 옥탑방 밖으로 내던진다. // 완득: (말리며)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민구 삼촌: 이, 이리저 마! 씨, 씨우, 씨우지 마! 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자식 놈 버리고 저 혼자 호강하겠다고 도망쳐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당신이 완득이 얼굴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서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치듯 옥탑방에서 뛰쳐나간다. / 완득, 어머니 신발을 챙겨 들고 어머니를 쫓아간다.

(다) <8. 얼마 향기 - 완득, 어머니>

[완득]

방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던 것 같아.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익숙한

나 혼자 있을 때와는 달랐던 이 향기.

화장도 안 했는데 도대체 무슨 향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향기.

나만 지금껏 몰랐었던 걸까, / 이런 게 바로, 바로.

완득, 어머니가 건넨 흰 봉투를 꺼내 읽는다.

[어머니]

맛고 살지 않았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난 나쁜 여자예요. 정말 미안해요.

혹시 전화할 수 있다면 꼭 해 주세요.

안 해도 돼. 그런데 한번 꼭 듣고 싶어요.

목소리 한번 꼭 듣고 싶어요.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 가게 주인: 어서 오세요.

완득: 신발 몇 신어요?

어머니: 네?

완득: 신발 몇 신냐고요.

어머니가 말을 흐리며 머뭇거린다.

가게 주인: 딱 보니 이백사십은 되겠네.

완득: 이백사십짜리 구두 보여 주세요.

어머니: (손사래 치며) 아니예요. 편찮아요. 이리저 말아요.

완득: (어머니 단화를 가리키며) 이렇게 납작한 거 말고요 굽 있는 것으로 보여 주세요. (뭔가 발견하고는) 이거 편찮겠네요. 이것으로 보여 주세요.

가게 주인: 가만 보니 저쪽 사람 같은데, 학생하고 많이 닮았네. 신어 봐요. 이백사십, 굽 높은 거.

가게 주인, 굽이 7센티미터나 되는 분홍색 구두를 내민다.

어머니가 머뭇거린다.

가게 주인: 사 준다고 할 때 얼른 신어. 학생이 예쁘고 좋은 것으로도 골랐네. 그런데, 들어 무슨 사이야?

어머니, 가게 주인의 말에 당황해 얼른 구두를 신는다.

가게 주인: 꼭 맞네. // 어머니, 구두를 벗는다.

완득: 그냥 신고 가세요 // 어머니, 눈치를 보며 다시 구두를 신는다.

가게 주인: 아니, 무슨 사이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찢절때?

완득: 얼마예요?

가게 주인: 이만 오천 원인데 이만 삼천 원만 줘. (어머니에게) 아, 그런데 무슨 사이냐니까..... / 완득: 수고하세요.

완득, 어머니의 흰 신발을 챙겨 얼른 가게 밖으로 나간다.

가게 주인: 잘 가요.

어머니: (신발 가게 주인에게) 저기..... 거스름돈이요.....

가게 주인: 이 어줌마 갑자기 한국말 잘하네...... 여기도 거스름돈, 이런 원, 잘 가요.

어머니, 신발 가게 주인에게서 거스름돈을 받고 얼른 따라 나간다.

어머니: 고..... 고..... 고마워.....

뮤지컬 대본 이해하기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표현한다.
- ② 소설과 달리 서술자 없이 사건이 진행된다.
- ③ 무대와 관객 사이에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노래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풍부하게 전달한다.
- ⑤ 소품과 의상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징을 드러낸다.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02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는 완득이를 편하게 대한다.
- ② 아버지는 어머니와 화해하기를 바란다.
- ③ 완득이는 어머니가 준 선물에 기뻐한다.
- ④ 가게 주인은 완득이가 효자라고 생각한다.
- ⑤ 완득이는 어머니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연다.

세종실

원격과 재구성된 작품 비교하기

03 (나)와 <보기>의 차이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5점]

[보기]

그분은 축축 늘어지는 천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이거.....”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나 줄 돈 있으면 신발이나 새로 사 신으세요 요즘은 애들도 저런 거 안 신어요
“말로는 잘 못 하겠어서..... 너무 미안해서.....”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분은 기어이 봉투를 내려놓고 방을 나갔다. 교회로 가는 걸까.

[조건]

- 내용상의 차이 한 가지를 밝혀 쓸 것
- ‘(나)’에서는 ~지만, <보기>에서는 ~다.’의 문장 형식으로 쓸 것

(나)에서는 어머니가 운동화나 신발을 주지않고, <보기>에서는 신발을 준다.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

04 (라)에 나타난 가게 주인의 문체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직업을 무시한다.
- ② 학력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한다.
- ③ 외국인에게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낸다.
- ④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대한다.
- ⑤ 청소년들의 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대단원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05 이 글에서 완득이에 대한 어머니의 미안함과 사랑을 표현한 소재를 두 가지 찾아 쓰시오.

운동화, 흰 봉투
(편지는 (나)이 썼음)

연출 시 고려할 사항 파악하기

06 이 글을 뮤지컬로 공연하기 위해 연출자가 ㉠~㉣에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표정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낼 것
- ② ㉡: 배경음악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
- ③ ㉢: 포장을 뜯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삽입할 것
- ④ ㉣: 관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빠르게 행동할 것
- ⑤ ㉤: 관객 놀라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잘 드러낼 것

[07~1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란시장 국밥집.

어머니: 완득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게 허락해 주세요…….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 해.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 해. 아니 안 한대요. 모든 걸 다 속에 담아 두고서는 앓고만 있대요. 누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 아세요?

아버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 이동주 선생님입이요.

아버지: 그 선생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퇴장. 민구 삼촌이 아버지의 눈치를 본다.

(나) <15. 왜 - 완득>

왜 하필 나야 왜. 왜 하필 나야 왜. 왜 하필 나야 왜.

[왜 하필 너에게 왜]

왜 하필 나야 왜. 왜 하필 나야 왜. 왜 하필 나야 왜.

[왜 하필 너에게 왜]

누가 뭐라든 누가 욕하든 나 반드시 이긴다.

킥복싱이든 내 인생이든 나 이기고 말 거야.

누가 뭐라든 누가 욕하든 반드시 이긴다.

킥복싱이든 내 인생이든.

누가 뭐라든 누가 욕하든. 누가 뭐라든 누가 욕하든

나 이기고 말 거야. 나 반드시. 나 반드시.

나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 난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다) 실내 체육관. 종이 울린다. 심판이 완득이와 상대 선수를 링 중앙으로 부른다. 상대 선수에게 경신없이 맞기 시작하는 완득이의 시야가 흐려진다. 옆구리에 킥이 꽂힌다.

동주: (난입하며) 인마, 도완득! 지면 안 돼! 힙내라, 도완득!

완득이가 링 구석에서 휘청이며 무너지고, 판장은 링 중앙으로 수건을 던지려 한다.

판장: 완득아, 이제 그만하자.

완득: 판장님, 절대 수건 던지지 마세요.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완득: 판장의 손에서 수건을 빼앗아 땀을 닦고는 멀리 내던진다.

완득: (도내 챔피언에게) 야, 난 시합에서 저도 상관없어.

도내 챔피언: ?

완득: 네가 내 갈비뼈를 박살 내도 상관없고 네가 날 케이오(KO)로

이거든, 판정으로 이기는 난 상관없어. 극적인 역전승 따위를 바라는 게 아니야. 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버틸 테니까, (가드를 올리고서는) 봐주지 마라. 날 이겨 봐!

(라) <20. 햇살 1그램 - 완득, 전체>

[완득]

난 지금 원해. 난 지금 달려. / 난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

나 햇살이 왜 본다.

난 지금 원해. 난 지금 달려. / 나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

어머니: 완득아……. // 완득,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다. //

완득: …… 이제 어디도 가지 마세요……. 내가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응원받고 싶은 사람, 안겨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민구 삼촌, 판장님, 동주 선생님, 윤하, 친구들, 그리고…… 엄마……, 엄마……, 엄마

완득이의 '엄마'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어머니.

완득이가 어린이이처럼 목 놓아 울면 어머니가 다가가 보듬는다.

[어머니]

넌 지금 원해. 넌 지금 달려. /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

넌 햇살이 왜 본다.

[동주, 가족들, 윤하, 판장]

저 하늘의 별처럼 하늘로 날아올라.

네 끝에 달는다, 세상에 외쳐 본다.

너는 지금 자유롭게

하늘을 달린다. 바람을 가르다.

글의 내용 이해하기

07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도내 챔피언은 완득이의 말에 감명을 받는다.
- ② 어머니는 완득이가 킥복싱하는 것을 반대한다.
- ③ 답입 선생님은 완득이를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 ④ 완득이는 경기에서 반드시 우승하리라 다짐한다.
- ⑤ 아버지는 완득이에게 경기를 포기할 것을 권유한다.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08 (나)에서 완득이가 부르는 음악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울함.
- ② 비장함.
- ③ 경쾌함.
- ④ 쓸쓸함.
- ⑤ 으스스함.

면출 시 고려할 사항 파악하기

09 (다)를 공연할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완득이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작은 목소리로 연기하면 좋겠어.
- ② 완득이가 경기에서 맞을 때 효과음을 넣으면 사실감을 높일 수 있어.
- ③ 소품으로 종과 수건을 준비하면 경기장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담을 수 있어.
- ④ 무대 장치로 링 경기장을 설치해서 실내 체육관의 모습을 실감 나게 보여 줘야겠어.
- ⑤ 관중을 무대 배경에 그려서 많은 인물을 무대 위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해야겠어.

글의 주제 파악하기

10 이 글의 홍보 문구를 <조건>에 맞게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이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할 것
- 외문으로 나타낼 것

- ① 완득이는 왜 화가 났는가?
- ② 우리 완득이가 달라졌어요!
- ③ 자신과의 한 판 승부의 결과는?
- ④ 완득이 인생의 첫 경기가 시작하다.
- ⑤ 올해의 도내 챔피언은 누가 될 것인가?

서술형 재구성한 작품의 새로운 가치 파악하기

11 (다)는 <보기>를 재구성한 것일 때, 재구성한 과정에서 드러나고자 한 새로운 가치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5점]

[보기]

내 인생의 정식 첫 시합 날. 1라운드에서 또다시 티케이오(TKO)로 패한 날, 판장님이 떠났다. (다) <문자화> : 구로리민 장명호 지시

[조건]

- <보기>를 (다)와 같이 재구성함으로써 달라진 내용을 서술할 것
- <보기>를 (다)와 같이 재구성함으로써 드러나는 새로운 가치를 서술할 것

연극은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

12 다음은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주제 정하기 → (㉠) → 역할 정하기 → 세부 연습하기 → 최종 연습하기 → 공연하기

- ① 이야기를 장면으로 구성한다.
- ② 장면 속 연극 요소를 살핀다.
- ③ 중심인물과 주변 인물을 정한다.
- ④ 공연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한다.
- ⑤ 등장인물의 성격과 주요 갈등을 만든다.

대사의 기능

13 연극의 대사의 기능으로 알맞은 내용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 ㉠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나타낸다.
- ㉡ 서술자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낸다.
- ㉢ 관객의 반응을 보여 준다.
- ㉣ 사건을 전달하고 주제를 형상화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최종 연습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

14 연극을 공연하기 전 최종 연습 할 때 점검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연을 본 관객들이 주제에 공감했는가?
- ② 등장인물이 어울리는 의상과 분장을 준비했는가?
- ③ 배우의 대사과 동작에 맞추어 음향을 활용했는가?
- ④ 준비한 무대 장치를 장면에 따라 적절하게 바꿨는가?
- ⑤ 배우는 대사를 숙지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했는가?

연극의 요소

15 다음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연극 대본에서 시간적·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무대 장치 등을 설명하는 부분

[16~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두운 밤 안엔 /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해치고 따 오신 /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질쭉,
젊은 아버지의 ㉣서느린 옷자락에
열로 삼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뿔뿔은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속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16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
- ㉡ 역설의 표현 방법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 반어를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시어를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고조되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 ㉡ ㉡: 말하는 이가 강인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 ㉢: 축약적 이미지로 아버지의 정성을 표현한다.
- ㉣ ㉣: 사랑이 충만한 때를 의미한다.
- ㉤ ㉤: 현재 말하는 이가 있는 공간이다.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18 ㉥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도시를 향한 동경
- ㉡ 자연에 대한 호기심
- ㉢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 ㉣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 ㉤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 비교하기

19 <보기>는 이 시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두 작품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어린 아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올라 온 식구가 걱정하였다. 며칠 동안 내린 눈으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산수유 열매를 떠올리고 길을 나섰다. 하지만 이내 눈보라가 심해져 길을 잃고 말았다.
이때 눈앞에 장군 바위가 보였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장군 바위 근처에서 산수유나무를 구경했던 추억이 떠올랐다. 추위와 어둠으로 걷기조차 힘들어서 산수유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갈까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장군 바위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장군 바위에서 구해 온 산수유 열매를 아들에게 먹였다. 다행히도 아들은 점차 열이 떨어졌다. 나는 아픈 아들이 어서 낫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제 나도 진짜 아버지가 되었음을 느꼈다.

- ㉠ 시와 달리 <보기>에는 '나'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 ㉡ 시와 달리 <보기>에는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보여 주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 ㉢ <보기>와 달리 시에서는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 ㉣ <보기>와 달리 시에서는 '나'가 산수유를 구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 이 시와 <보기>는 모두 '나'가 어린 시절 열병에 걸려 앓은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다.

[20~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놀부는 마음보가 시키면 놀이라 흥부 오는 짝을 보면 구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흥부는 형을 만나기도 전에 예전에 맞던 생각을 하니 겁이 저절로 났다. 온몸을 떨며 공손히 마루 아래에 서서 두 손을 마주 잡고 절하며 문안을 드린다. / 이럴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와락 뛰어 내려와서 부축하여 올라가며 이렇게 위로했을 것이다.
“형제간에 마루 아래에서 인사를 하다니 이제 무슨 말이나?”

그러나 놀부는 워낙 도리를 모르는 놀이라 흥부가 곡식이나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인 줄 지레짐작하고 못 본 체 단장을 피운다. 흥부가 여러 번 말을 걸자 그제서야 겨우 묻는다.

“네가 누구인고?” / 흥부는 기가 막힌다.

“내가 흥부올시다.” / 놀부가 외락 소리 지르며 되묻는다.

“흥부가 어떤 놈인고?”

“애고, 형님, 이것이 무슨 말씀이요? 마오, 마오, 그리 마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께 비나이다. 세기 굶고 누은 자식 살려 낼 길이 전혀 없어 열치를 불고하고 형님 댁에 왔습니다.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비나 쌀이나 아무것이라도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값으며 일을 한들 거저야 먹겠습니까? 아무쪼록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죽는 목숨 살려 주십시오.”

이처럼 애절하지만 놀부 하는 꼴이 어처구니없다. 사나운 범갈이 날뛰며 모진 눈을 부릅뜨고 핏대를 울리며 나무란다.

“너도 참 염치없는 놈이다. 내 말을 들어 보이라. 하늘은 먹을 것이 없는 인간을 낳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만들지 않는다 했으니 누구나 제 먹을 것은 타고나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 그리 복이 없어 하고난 날 내게 와서 이리 보체느냐? 여러 소리 듣기 싫다.”

그래도 흥부는 울면서 애절한다.

“어린 자식들 데리고 굶다 못하여 형님 처분만 바라고 열치를 돌아보지 않고 왔습니다. 만일 양식을 못 주겠거든 돈 서 돈만 주시면 하루라도 살겠습니까.”

그러나 놀부는 더욱 화를 내며 나무란다.

(나) 해설자 : 그러나 놀부는 워낙 도리를 모르는 놀이라 흥부가 곡식이나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인 줄 지레짐작하고 (강조하여) 못 본 체 단장을 피운다. 흥부가 여러 번 말을 걸자 그제서야 겨우 묻는다.

놀부 : (㉠) 네가 누구인고? (놀라는 효과음)

해설자 : 흥부는 기가 막힌다.

흥부 : (당황해서 작은 목소리로) 내가 흥부올시다.

해설자 : 놀부가 (목소리를 키워) 외락 소리 지르며 되묻는다.

놀부 : (정말 모르는 듯 시치미를 떼며) 흥부가 어떤 놈인고?

흥부 : (애절하는 목소리로) 애고, 형님, 이것이 무슨 말씀이요? 마오, 마오, 그리 마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께 비나이다. 세기 굶고 누은 자식 살려 낼 길이 전혀 없어 열치를 불고하고 형님 댁에 왔습니다.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비나 쌀이나 아무것이라도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값으며 일을 한들 거저야 먹겠습니까? 아무쪼록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죽는 목숨 살려 주십시오.

해설자 : (비판 조로) 이처럼 애절하지만 놀부 하는 꼴이 어처구니없다.

사나운 범갈이 날뛰며 모진 눈을 부릅뜨고 핏대를 울리며 나무란다.

놀부 : (근소리로 화를 내며 혼제하는 듯이) 너도 참 염치없는 놈이다. 내 말을 들어 보이라. 하늘은 먹을 것이 없는 인간을 낳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만들지 않는다 했으니 누구나 제 먹을 것은 타고나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 그리 복이 없어 하고난 날 내게 와서 이리 보체느냐? 때를 차게 여러 소리 듣기 싫다.

해설자 : (천천히) 그래도 흥부는 울면서 애절한다.

흥부 :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린 자식들 데리고 굶다 못하여 형님 처분만 바라고 열치를 돌아보지 않고 왔습니다. 만일 양식을 못 주겠거든 돈 서 돈만 주시면 하루라도 살겠습니까.

해설자 : (비판 조로) 그러나 놀부는 더욱 화를 내며 나무란다.

글의 특징 파악하기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는 등장인물이 직접 사건을 서술한다.
- ㉡ (나)는 말투와 어조를 생생하게 구성해야 한다.
- ㉢ (나)는 공연을 전제로 하며 배경 설정에 제약이 있다.
- ㉣ (가)와 (나)는 모두 허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 ㉤ (가)와 (나)는 모두 인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글의 내용 이해하기

21 (가)를 감상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흥부는 집에서 굶고 있을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 ㉡ 놀부는 도움을 구하러 온 흥부를 모르는 체하고 있군.
- ㉢ 놀부는 흥부가 마루 아래에서 인사하는 것을 놀라워했어.
- ㉣ 놀부는 계속해서 애절하는 흥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
- ㉤ 흥부는 곡식을 꾸러다 화를 당할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

지시문 구성하기

22 (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나)를 작성했을 때, ㉥에 들어갈 지시문의 내용을 쓰시오.

시치미를 떼며
(단장을 피우며)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 이해하기

23 (나)를 바탕으로 연극을 공연한다고 할 때, 준비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놀부와 흥부의 복장은 대조적으로 보이게 한다.
- ㉡ 낡고 가난한 흥부의 집을 무대 배경으로 꾸민다.
- ㉢ 흥부를 연기하는 배우는 애절한 표정을 연습한다.
- ㉣ 해설자를 연기하는 배우는 비판 조의 말투를 연습한다.
- ㉤ 놀부를 연기하는 배우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섭외한다.

(1) 작품의 재발견

● 완득이 ●

★핵심 정리

갈래	유지컬
성격	사회적, 교훈적
주제	자신의 꿈과 사랑을 찾아 성장하는 완득이의 모습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함. 가난, 장애 등 어두운 현실을 10대 주인공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 비교적 밝게 묘사함.

■이 글의 구성

발단	아버지, 친구 삼촌과 함께 사는 완득이는 담임 선생님에게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됨.
전개	완득이는 담임 선생님의 주선으로 어머니를 만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함.
절정	완득이는 같은 반 친구 윤하와 가까워지고,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킥복싱을 시작함.
하강	완득이는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에게 분홍색 구두를 선물하며 점차 마음을 열어 감.
대단원	완득이는 자신의 첫 킥복싱 경기에는 지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됨.

■ 어머니를 대하는 완득이의 마음

행동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에게 더는 존댓말을 쓰지 말라고 함. 어머니에게 분홍색 구두를 사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의 관계를 묻는 신발 가게 주인의 말에 대답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조심스러움과 망설임을 느낌.

■ 가게 주인의 말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

- “가만 보니 저쪽 사람 같은데, 학생하고 많이 닮았네.”
- 완득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자주 물음.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 바라보는 편견이 드러남.

■ 완득이의 태도 변화

행동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챔피언과 힘든 경기를 펼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득이가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며 성장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가 끝난 뒤 처음으로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어머니를 받아들임.

■ 노래에 드러난 완득이와 어머니의 심리

7. 마주치지 않을까요 -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득이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조심스러워 함.
8. 엄마 향기 - 완득,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득이: 어머니를 처음 마주한 뒤 마음이 흔들림. 어머니: 완득이의 옆에 있어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함.

★꼭 알아 두기

■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며 감상하기

-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며 내용과 표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함.
- 재구성된 작품에 나타난 관점의 변화나 그에 따른 형식과 맥락, 매체 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함.
- 재구성된 작품에 반영된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파악함.

■ 유지컬 대본 <완득이>에 나타난 변화 양상

	표현
원작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득이가 서술자가 되어 사건과 인물의 행동을 설명함. 완득이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함.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함.
유지컬 대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사와 노래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제시함.

	내용
원작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가 완득이에게 편지를 건네고 대화를 마친 뒤 떠남. 완득이의 킥복싱 첫 경기 날을 간략히 제시함.
유지컬 대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가 완득이에게 운동화와 편지를 건네고 아버지의 등장으로 황급히 떠남. 완득이가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원작 소설을 유지컬 대본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갈래상의 차이에 따른 표현 방식의 변화가 나타남.
- 작가가 작품을 재구성하면서 원작 소설의 내용을 변형하여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부여함.

(2) 우리가 만드는 연극

★꼭 알아 두기

■ 연극을 공연하는 과정

주제 정하기	연극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결정함.
대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본 만드는 방법 논의하기.: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대본 창작하기, 기존의 문학 작품 각색하기 등 등장인물의 성격과 주요 갈등을 만들고 이야기를 장면으로 구성하기. 장면 속 연극 요소를 살려 장면을 대본으로 만들기.
역할 정하기	연기, 무대 장치와 조명, 배경 음악과 음향, 의상과 분장, 소품 등 각자 연극 공연에서 맡을 역할을 정함.
세부 연습하기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장면별로 세부 연습을 진행함.
최종 연습하기	공연에 앞서 최종 연습을 하며 준비한 내용을 점검함.
공연하기	준비한 연극을 공연함.
평가하기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의 잘된 점과 개선할 점 등을 생각해 봄.